

# 기업인과 친해진 대통령

— 訪美수행단으로 다녀와서 —



장흥순 \_ 벤처기업협회 회장

벤처기업협회 회장으로서 노무현 대통령의 방미 일정을 수행하고 귀국한 후 이번 방미와 관련한 대내적인 평가를 보고 상당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필자가 일주일간 경제사절단 일원으로서 대통령을 수행하면서 느꼈던 감회와 기대와는 동떨어진 평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책과 노선을 달리하는 정치권의 평가야 각자 입장에서 상이할 수 있기에 그다지 놀랄 바가 아니었지만 일부 언론의 보도 태도와 국민 정서는 필자로서는 사실 낯설다는 표현이 무색하지 않았다.

양 정상 합의사항의 적절성, 의전 및 예우상 문제점, 대통령의 언행 등에 대한 비판과 격려가 언론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것 같다. 혹자는 이번 방미를 계기로 대통령의 지지층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과장하기도 한다.

이번 대통령의 방미가 과연 최선의 외교성과를 도출해 낸 것인지 필자로서는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솔직히 필자는 대통령께서 과거의 시각을 유지해 복핵 문제를 비롯한 안보문제의 위험성을 가중시키는 상황과 자존심을 포기했다고 비판받을망정 눈앞의 큰 위험을 제거하는 상황 중 택일하라는 이분법적인 질문 앞에서는 미련 없이 후자를 선택할 것이다.

통상적인 수준에서 보면 대통령의 발언이 본인의 대미관이나 국민 정서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노 대통령에 대한 골 깊은 오해를 가지고 있는 부시 행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방미한 대통령 입장에서 이것보다 더할 수사라도 마다할 수 있었을까. 대가 없는 리서비스를 하고 실리를 챙길 수 있다면 그렇게 하라는 것이 냉엄한 국제사회의 외교원칙이라 하지 않던가.

기왕에 현실주의, 실리주의로 입장을 굳혔다면 더 이상 방미 당시 일들에 대한 평가로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후속적인 협상과정에서 정말로 국익을 잘 챙기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리라 믿는다.

이번 방미에는 전경련 회원사 대부분의 총수와 대규모 임원단이 동행해 대통령의 방미 일정을 도왔다. 역대 어느 대통령의 방미에도 이 번처럼 그룹 총수들이 대거 참여하는 대규모 경제사절단의 동행은 없었다고 한다.

이를 두고 재벌에 우호적이지 못한 정치 환경을 개선해 보자고 전경련이 나섰다라는 식의 단편적인 시각으로 해석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이는 현실을 파악하지 못한 편의적인 이해인 것 같다. 잘 알다시피 지금 국내외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과 위험요인은 외환위기 수준을 능가한 복합적이고 총체적인 수준에서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

기업과 가계의 체감경기는 외환위기 상황보다 더 나쁘다는 것이 1분기를 지난 시점에서 기업인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며칠 전 발표한 성장사령의 1분기 실적을 비롯한 여러 가지 통계지표는 기업인들의 평가와 똑같이 경기가 침체 늪에서 허덕이고 있음을 여실히 방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미 정부와 기업에 어떠한 메시지를 주느냐가 기업들의 대미 수출과 투자 유치, 금융시장 안정에 서는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모든 기업인이 힘을 합쳐 대통령의 방미를 지원하고 한·미간 우호적인 관계 형성을 통해 본 난국을 돌파하자는 취지였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실제로 전경련 회원사들은 자사의 미국 내 네트워크를 동원해 인텔, HP, MS, 쉘컴, 선미마이크로시스템스 등의 최고경영자와 대통령의 만남을 주선해 한국에 대한 투자와 기술제휴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미국 내 거물급 정·재계 인사가 대거 참석하는 연회를 개최해 한국 정부와 기업들에 대한 오해와 의혹의 시선을 불식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말 그대로 경제사절단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이번 방미를 통해 대통령과 기업인들 사이의 신뢰와 이해가 증진된 것도 큰 성과다.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친근로자, 반재벌 성향이라는 대통령을 모신 대다수 기업인은 향후의 기업 정책들이 기업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이상적인 수준에서 입안되는 것을 항상 우려해 왔다.

그러나 방미 기간 중 대통령은 기업인들과 격의없이 대화하는 자리를 공식·비공식적으로 여러 차례 만들었고 많은 기업인이 이에 고무됐다.

특히 필자를 비롯한 4명의 벤처기업인에게는 예정치 않은 간담회를 마련해 업계의 고충을 들어주고 향후 정부의 벤처기업 정책에 대한 확신과 애정을 심어주었기에 특별한 감사를 드리고 싶다. 이번 방미를 계기로 대외적인 환경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침체된 국내 경기를 정상화시키는 데 진력하자는 것이 이번에 수행한 모든 기업인의 공통된 다짐이었다.